

## 북한의 기업관리에서 환율의 적용

전경주 | 북한대학원대학교 | jhonus78@gmail.com

북한은 최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민생 향상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우리 당이 인민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받드는 것은 결코 자금이 남아돌아 가서가 아니다’<sup>1)</sup>라며 자금난을 강조하였는바, 현재 북한 내 자금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북한 자금 운용의 중요한 요소인 환율이 기업관리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그 종류와 목적, 제정 단위, 적용 방법의 면에서 설명하여 북한경제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료는 북한 관련법 및 문건, 도서, 간행물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1) 『노동신문』, 2021. 6. 20.

공식적으로 밝혀진 데 의하면 북한의 환율에는 국가 기준환율, 협동환율, 결제환율이 있으며<sup>2)</sup> 이외에 비공식적인 암시장환율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에서는 암시장환율을 제외한 기업관리에서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환율들의 적용 단위와 목적, 방법을 기업 운영 원리의 순차를 따라가며 고찰해 보려 한다.

## 1. 국가 기준환율

북한에서 환율의 의미는 한 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간의 교환 비율<sup>3)</sup>이며 기업관리에서 외화의 사용 문제는 필수로 제기되게 된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 돈자리<sup>4)</sup>(계좌)를 두고<sup>5)</sup>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입출금을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은행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원에 의한 은행 통제’<sup>6)</sup>라고 한다.

국가는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율 공간을 이용하게 되며, 이것은 환율의 제정과 조정을 통하여 실현된다.<sup>7)</sup> 국가 기준환율은 국내 화폐와 국가가 정한 다른 나라 화폐와의 교환 비율로서, 다른 환율을 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환율<sup>8)</sup>이다. 이것을 규정하는 사업은 환율의 제정과 관련한 사업인데, 환율의 제정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주로 계획작성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국가 기준환율의 제정은 계획경제인 북한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강경희(2019)는 “환자 시세 관리에서 계획성의 원칙을 구현해야 계획 시기 환자 시세의 수준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그것을 계획작성사업에 목적 지향성 있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계획의 현실성과 동원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로부터 계획 시기 환자 시세 수준을 예견하는 데서는 분석 시기 환자 시세 변동에 작용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자 시세 수준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며 그것을 계획작성과 집행과정에 이용하게 된다.”<sup>10)</sup>라고 밝히고 있다. 즉, 국가 기준환율은 계획작성을 위해 필요한 환율이다. 외화를 사용하는 독채 기업소<sup>11)</sup>의 경우 계획작

2)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1.

3)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428.

4) 『재정금융사전』에서는 돈자리는 “예금거래대상자별로 거래 정형을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은행의 부기 장부에 설정한 자리”라고 밝히고 있다. p.388.

5) 본고에서는 계좌를 북한식으로 돈자리로 표기하기로 한다.

6)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원에 의한 통제는 “사회주의국가가 화폐적 공간을 리용하여 기관, 기업소들의 경리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적 통제의 한 형태”라고 밝히고 있다(p.1463).

7)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38.

8)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1.

9)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39.

10)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0.

11) 『재정법』, 제30조(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예산제) “자체 수입으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독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국가 예산에서 일정한 정도의 경비예산자금을 받으면서 자체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반독

성이 필수적이며 계획은 내화와 외화로 구분하여 작성되는데, 외화계획작성 때 이용되는 환율이 국가 기준환율이다.

국가 기준환율은 중앙은행이 제정한다.<sup>12)</sup> 기업은 중앙은행이 제정한 국가 기준환율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재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 외화 수지 계획<sup>13)</sup>은 국가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제정하게 된다.

북한 회계법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이 밝혀져 있다.

‘회계법 제15조(중앙회계 계산의 당사자와 계산내용)

중앙회계 계산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예산 수지, 재정 상태, 경영수지, 외화 수지, 국제수지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듯 국가 기준환율은 회계 계산을 위한 환율이며 계획작성과 집행과정에 이용하게 되는 환율이 1달러에 대한 국가 기준환율은 대략 100외화원이며, 1유로에 대한 국가 기준환율은 대략 120외화원이다.<sup>14)</sup>

국가 기준환율은 기업의 판매 영업활동에도 이용되게 되는데, 외화로 운영되는 호텔이나 음식점의 가격이 그러하다. 최재영(2018)은 북한의 체험기 중 북한 메뉴판을 소개하면서 아메리카노 380원, 팔빙수 500원 등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기준환율에 기초한 가격으로서 아메리카노 3.8달러, 팔빙수 5달러와 같이 구매자 편의 보장을 위한 보여주기식 가격으로도 국가 기준환율이 이용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sup>15)</sup>

## II. 협동환율

협동환율은 북한 내의 시장가격에 대응한 북한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간의 교환 비율<sup>16)</sup>이다. 국가 기준환율이 북한정부가 정한 가격과 다른 나라의 물가를 대비하여 정한 환율이라면, 협동환율은 북한 내 시장가격과 다른 나라의 물가를 대비하여 정한 환율이다. 이 환율들은

립채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국가 예산에서 경비예산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산제로 관리 운영한다.”

12) 『중앙은행법』, 제30조, “기준환율, 리자율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13) 『재정금융사전』에서는 외화 수지 계획은 “사회주의국가가 외화의 수입과 지출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도록 세운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p.1437).

14) DEUTSCHE BUNDESBANK EURO SYSTEM, “Exchange rate statistics,” June 2021, Statistical Series, p.29(<https://www.bundesbank.de/resource/blob/867800/d989b8bfa287891fe349d05f49bd772d/mL/2021-06-14-12-39-26-wechselkursstatistik-data.pdf>, 검색일 2021. 7. 3).

15) 최재영,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2018, p.61.

16)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1.

서로 다른 기준에 기초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제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sup>17)</sup> 다만, ‘국가 기준환율이 다른 환율을 정하는 데 기준으로 적용된다면, 협동환율은 국내에 있는 유휴 외화자금을 거두어들여 국내에서 외화 유통을 막고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데 적용’<sup>18)</sup>된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강경희(2019)는 “국가 기준환율과 배리된 협동환율을 잠정적으로 제정하고 조종하는 기본 목적은 유통에 깔려 있는 유휴 외화자금을 최대한 국가 수중에 동원하여 국내에서의 외화 유통을 막으며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원만히 조절하기 위한 데” 있으며 이로 인해 협동환율은 외화의 팔고 사기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sup>19)</sup>

우선,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사이에서 협동환율이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은행법에는 “중앙은행은 화폐 유통을 조절하고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폐의 팔고 사기를 할 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 사기를 할 수 있다.”<sup>20)</sup>라고 되어 있고, 상업은행법에는 “상업은행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팔고 사기를 할 수 있다. 화폐의 팔고 사기는 환자 시세에 따라 조선 원과 외화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한다.”<sup>21)</sup>라고 되어 있다. 또한 중앙은행법에는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 사이의 결제, 지불 준비금의 적립 같은 것에 이용하여야 한다.”<sup>22)</sup>라고 밝혀져 있다. 이로부터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상호 간에 외화의 팔고 사기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앙은행에 개설된 상업은행의 예금 돈자리를 통하여 실현되는데, 이때 협동환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강경희(2019)는 중앙은행의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조정기금 제도<sup>23)</sup>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밑 자금조성이 필요하며 “밑 자금은 주로 내화로서 중앙은행이 발권을 통하여 대여하거나 공급하는 방법으로 보장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환율관리를 위한 기구를 따로 내오고 거기에 내화 자금을 대부해 주어 일정한 정도로 환율조정기금을 확보한 다음에는 그것을 반환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공급자금 원천으로 마련해 주어 중앙은행의 자금 원천이 되게 하여야 한다. ... 환율관리기구는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밑 자금을 토대하여 외화를 구매하고 구매한 외화를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격 편차에 의한 외화 보유, 내화 보유를

17)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2.

18)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3.

19)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3.

20) 『중앙은행법』, 제29조,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21) 『상업은행법』, 제38조,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22) 『중앙은행법』, 제32조,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23) ‘환율조정기금 제도는 중앙은행이 환율조정기금을 적립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환율의 크기를 조정하는 제도’이며 ‘환율조정기금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명백히 환율의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주로 외화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라고 밝히고 있다(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9).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에 외화 보유액과 내화 보유액은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환율조정기금을 이루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sup>24)</sup> 이로부터 환율조정기구가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환율조정의 직접적 담당은 중앙은행에 설립된 환율조정기구이며 이를 통하여 환율조정이 실행된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강경희(2019)는 “중앙은행의 환율관리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관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율조정기금이 일정한 수준으로 축적될 때까지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기관, 기업체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환율 안정과 조정을 위한 경험을 쌓고 충분한 환율안정 기금도 조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환율관리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만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기관, 기업체, 주민들 사이에 직접 이루어지며 이때 협동환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업은행과 기업 사이의 협동환율 적용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업은행은 거래자에게 현금 및 환치 거래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 주고<sup>25)</sup> 거래자들은 상업은행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는 외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원자재를 내화로 구입하여 외화로 판매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내화로 원자재를 구매하여 내화로 파는 기업인 경우에도 기업체들의 무역권 부여에 따라 대외경제활동을 위한 외화 수요가 제기되게 된다.

외화관리법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외화는 다음과 같은 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1. 대외경제계약과 지불협정에 따르는 거래
2. 려비, 경비, 유지비의 지불거래 같은 비 무역 거래
3. 은행에서 조선 원을 사거나 파는 거래
4. 예금, 신탁, 대부, 채무보증 같은 거래<sup>26)</sup>

중앙은행법 제3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0조(기준환율, 이자율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율, 이자율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율, 이자율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환율과 이자율을*

24)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79.

25) 『상업은행법』, 제30조,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26) 『외화관리법』, 2004년 11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 보충.

적용하여야 한다.’<sup>27)</sup>

이로부터 상업은행과 기업들 사이의 외화의 팔고 사기가 가능해지는데, 이때 협동환율이 적용되며 이때의 상업은행이 적용하는 협동환율은 금융기관 재산제<sup>28)</sup>에 따라 중앙은행이 정한 환율의 범위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존재가 국가 기준환율과 협동환율이 존재하는 이유이므로<sup>29)</sup> 협동환율은 국가 기준환율과 북한시장 내의 암시장환율 사이의 환율인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 III. 결제환율

결제환율은 “국가 기준환율과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및 환자 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무역은행이 정하고 이용하는 환율이다.”<sup>30)</sup> 무역은행이 제정하는 결제환율은 국가 기준환율을 기초로 한다는 측면에서 협동환율과 차이점을 가지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및 환자 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면에서 국내시장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는 협동환율과 공통점을 가진다.<sup>31)</sup> 결제환율은 국가 기준환율을 기초로 하여 위아래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규정되며 그 변동 폭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sup>32)</sup> 국제시장에서의 환율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화 결제도 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즉, 결제환율은 국가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환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거래자환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결제환율은 무역은행이 기관, 기업체들과의 외화 결제에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sup>33)</sup> 환율의 제정이 계획작성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환율의 조정은 계획집행단계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며<sup>34)</sup> 이에 따라 기업들의 외화계획수행을 위한 경영활동 집행과정에 결제환율이 적용된다. 상업은행은 거래자의 지불 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며<sup>35)</sup> 대금결제 시 결제환율이 적용되게 된다.

27) 「중앙은행법」,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28) 「금융기관 재산제는 상업은행들이 금융업무를 통한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경영활동 방식이다.」(전홍삼, 「화폐류통의 공고화와 그 실현 방도」, 『경제연구』, 1호, 2017, p.44).

29)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2.

30)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4.

31)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4.

32)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4.

33)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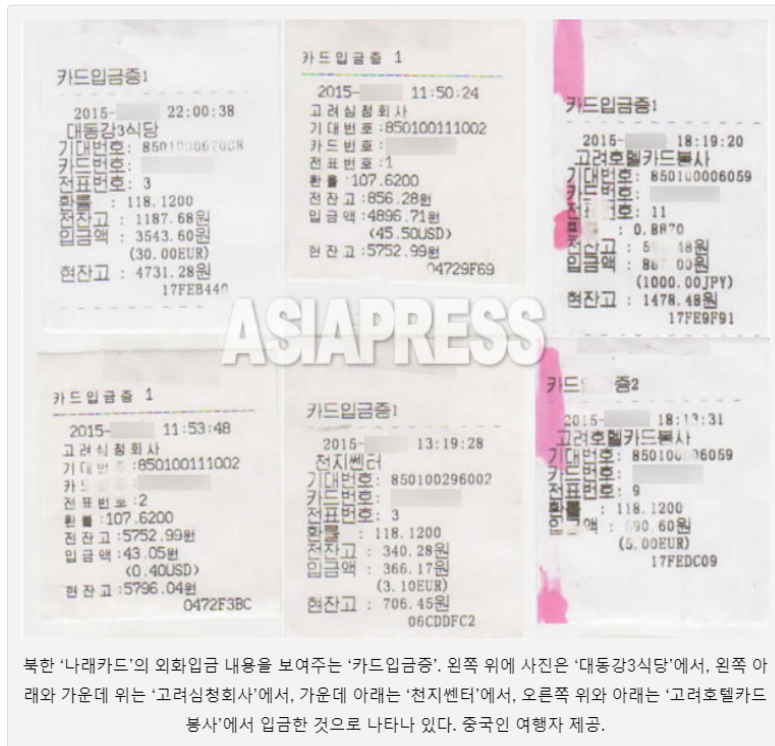
34)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40.

35) 「상업은행 법」,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 보충.

강경희(2019)는 “무역은행과 기관, 기업체들 사이의 거래는 압도적 부분이 외화 결제거래이며 여기서는 기관, 기업체들이 번 외화를 무역은행에 개설된 자기의 외화 돈자리에 보관하고 그 계산은 결제환율에 의한 외화 원으로 진행하며 기관, 기업체들이 지출하는 외화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결제환율은 주로 계산 수단의 기능만을 수행한다.”<sup>36)</sup>라고 밝히고 있다.

평양을 다녀온 중국인 여행자가 제공한 ‘카드 입금증’의 환전 내용을 통하여 ‘결제환율’의 적용을 알 수 있다. 날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유로 입금 시 118.1200외화원, 1달러 입금 시 107.620외화원, 1엔 입금 시 0.8870외화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이를 통하여 상업은행과 기업체들 사이의 거래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카드 결제에도 결제환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북한 내에서 암시장환율은 1달러당 8,200~9,000원으로 결제환율과 암시장환율의 비율은 거의 80배나 되었다고 한다.<sup>37)</sup>

[그림 1] 중국인 여행자가 제공한 ‘카드 입금증’



북한 '나래카드'의 외화입금 내용을 보여주는 '카드입금증'. 왼쪽 위에 사진은 '대동강3식당'에서, 왼쪽 아래와 가운데 위는 '고려심정회사'에서, 가운데 아래는 '천지센터'에서, 오른쪽 위와 아래는 '고려호텔카드회사'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인 여행자 제공.

자료: 『아시아프레스』, 「외국인의 환전환율은 실제의 80배, 입수한 '명세서'에 정제 드러나」, 2015. 6. 11.

36)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p.164.  
 37) 「외국인의 환전환율은 실제의 80배, 입수한 '명세서'에 정제 드러나」, 『아시아 프레스 북한 보도』, 2015. 6. 11(<https://www.asiapress.org/korean/2015/06/nk-economy/exchange-rate-2/2/>), 검색일 2021. 7. 6).

## 참고문헌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로동신문』, 2021년 6월 30일부.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36호, p.5.

『아시아프레스』, 「외국인의 환전환율은 실세의 80배, 입수한 ‘명세서’에 정체를 드러나」,  
2015. 6. 11.

안형익·박해식, 『북한 은행시스템의 변화와 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KIF금융리포트 2014-03.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전룡삼, 「화폐류통의 공고화와 그 실현 방도」, 『경제연구』, 1호, 2017, p.44.

최재영, 『평양에서 서울로 카톡을 띄우다』, 2018.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북한의 금융』, 2016. 6.

<웹사이트>

<https://www.bundesbank.de/resource/blob/867800/d989b8bfa287891fe349d05f49bd772d/mL/2021-06-14-12-39-26-wechselkursstatistik-data.pdf>(검색일: 2021. 7. 3).